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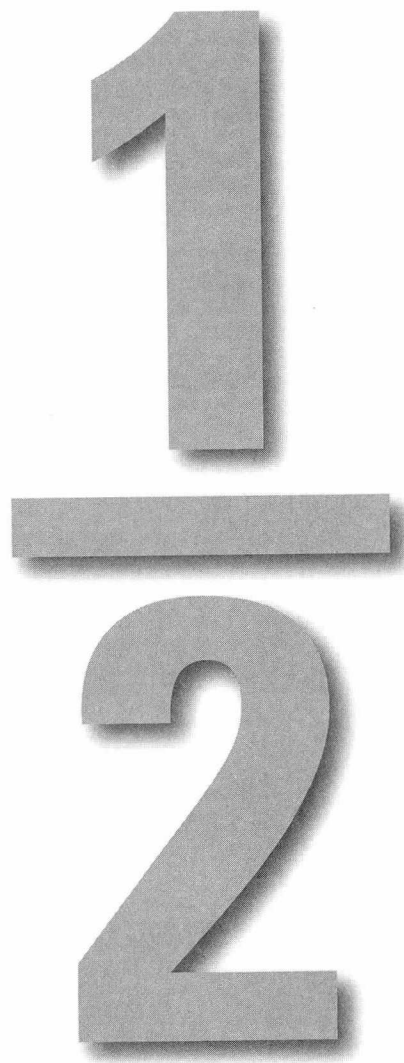
한농연,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입법청원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 등의 대외적인 변수와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대내적인 변수 등으로 인해 지금 현장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비 절감 등의 정책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부 법령 및 정부의 정책이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

이에 한농연은 4월 20일 국회 홍문표 의원 및 김춘진 의원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을 위한 핵심법령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간 한농연> 4월호에서는, 이들 정책의 핵심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한농연 박익규 회장 및 중앙임원, 홍문표 의원, 김춘진 의원은 4월 20일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 현행 농어가들이 공급받고 있는 면세유는 오는 6월 말에 일몰이 도래되어 일몰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농어민들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
- 현행 면세유가 과세유가 될 경우 농어업 소득은 최소 5.9%~최고 11.8%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어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전망이다

♣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남
- 이에 정부도 법 시행 8개월만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만큼 국회 본 회의 통과만 남겨 둔 학교용 지부담금 특별법과 같이 소급적용을 해야 함

♣ 쌀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 소득 등 운영에 관한 법률 재개정

- 현재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으로 목표가격 쌀값이 하락할 경우 85%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쌀소득등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올해 16만1,265원/80kg으로 하락할 것임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격이 하락된다면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쌀 산업은 위기에 직면할 것임

♣ 레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재개정

- 한국마사회에서 발생하는 원도 본래의 설립 취지인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보다는 타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
 - 실제, 2006년 마사회에서 지방세(레저세, 지방교육세)



한농연 박의규 회장과 홍문표 의원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위한 72만명의 서명용지를 담은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에 지원한 금액은 8,498억원인데 반해 농어촌 사업 재원 마련에는 1,918억원(22.6%)만이 지원됨
- 특히 경마는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기금 등의 출연기준이 되는 수익금이 매출액 대비 약 3% 수준에 불과(카지노, 복권, 스포츠토도 등은 매출액 대비 약 25~40%를 육박)

한농연 건의사항

♣ 생산비 반값 절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 농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
 -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
- 쌀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소득보전등운영에 관한 법률 재개정
- 레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재개정

♣ 생산비 반값 절감 관련 대정부 건의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장 제7조)’ 개정으로 대상품목 확대
 - 건의대상 품목 및 세금 경감액 추정 (단위 : 억원)

품 목	시장규모	경감액
농산물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200	18
농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150	14
농산물 포장용 PE 그물망	160	15
비닐하우스 부속자재(필름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 조리개·고정구 및 연결핀, 연동하우스 파이프 꽃이)	450	41
계	960	88

-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 농업용 필름 중 축산업용 필름(비닐하우스,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등), 파이프의 용도(비닐하우스)에 관계없이 축산업에 사용하는 파이프, 축산방역용 생석회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도록「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개정 건의



4월 20일 열린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면세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규규 회장이 취지발언을 하는 모습. 72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이뤄진 서명용지가 옆에 있다.

- 유기질비료(퇴비 포함) 보조공급 확대
 -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가 소요량 전량을 정부 지원 건의
 - 우수한 품질의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저가 공급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

농 가 소요량	2007년 지원 계획		2008년 지원 건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300톤	1,350톤	472억원	1,800톤	630억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성과 거둬

국회 본회의는, 4월 30일(월)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농연중앙연합회가 72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추진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 과 연대하여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는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경산), 강봉균 의원(군산)을 설득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은 한농연의 적극적 행보에, 농협중앙회와 여러 농민단체들이 힘있게 연대활동을 참여하여 단시간 내에 72만명의 국민들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한농연은 농업 생산비 반값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